

아태공동체 형성과
APEC 연구센터의 기여방안
- 결과 요약본 -

2006년 11월 3일 (금)
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

주최: KIEP, KOPEC

1. 제 1 세션 “2006 APEC 정상회의 주요의제와 추진 방안”

사회: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o APEC 연구센터의 기여

- APEC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공해줌
- 매년 APEC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함

o 금년 베트남 APEC 정상회담 예상 의제

-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에 관한 논의 예상
- DDA 재개를 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

발표: 지혜양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APEC 심의관

o DDA 이슈

- 현재 DDA 관련해서, DDA와 관련한 별도의 특별성명을 채택하자는 주장과 단지 정상선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각국의 입장조율이 진행 중임.
- DDA 이슈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각국의 융통성 및 리더십 발휘를 촉구하는 것임.
- 그러나 DDA 협상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미국이 중간 선거 이후 기본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DDA 관련 획기적인 문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o 보고르 목표 달성

- 보고르 목표를 점점하는 시점에 관한 이견이 대립하고 있음

- 중국은 2008년에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을 하자고 제시하고 있으나 호주와 미국은 2011년쯤에 보고르 목표 이행을 했는지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음
- 2008년에 중간점검을 하느냐 2011년에 하느냐에 따라 APEC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

o 아태자유무역지대(FTAAP)

-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큰 이슈중의 하나임.
-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, 부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, 내년 정상회담에는 FTAAP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안이 제출됨.
- 한국은 APEC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, 문화적 차이 때문에 FTAAP 설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임.
- 그리고 이미 미국과 FTA 협상 중이고 중국, EU와도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TAAP에 소극적인 입장임.

o APEC 장래문제

- 미국은 APEC을 구속력 있는(binding) 기관으로 만들고 싶어함.
- 미국이 FTAAP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됨.
- 그러나 APEC이 구속력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면 APEC의 포럼(forum)에서 기관(organization)으로 바뀌는 것이 됨.

o APEC 개혁문제

- APEC 운영의 효율화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
-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이슈는 사무국 강화문제로 미국, 호주가 중심이 되어 APEC의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기용하자는 COO(Chief Operating Office)개념을 제안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개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여 대립

o RTA/FTA

- 역내 기업인들이 FTA에 확산에 따른 거래 비용, 행정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옴.
-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FTA 분야별 표준모델안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음.
- 현재 FTA 14분야(chapter)의 표준모델안이 제출됨.
- 우리나라가 작성한 분쟁해결(dispute settlement)안은 90%이상 합의가 되어 금년 정상회담에 보고될 수 있는 성과물이 될 것으로 예상됨.
- 6개 정도의 표준모델안이 금년에 합의될 전망

토론: 유재원 건국대학교 교수

o 베트남과의 양자회담에서의 제안

-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공고화
- 한국에서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우수 인력의 훈련프로그램 제시하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o FTAAP 문제

- 현실성이 부족해 보임.
- APEC내의 자유무역, 무역 원활화를 위해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어 보임.

o FTA 표준모델

- 표준모델안을 최종 목표(final goal)로 상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함.

o APEC 개혁 문제

- 단순히 사무국을 강화한다는 것이 APEC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다이나믹(dynamic)한 협력체로 갈 것으로 보이지 않음. 재정적인 문제만 더 심화

시킬 것으로 판단됨.

- 안보문제나 개도국의 지원 문제를 APEC 고유의 영역으로 개발하여 구속력 있게 만들 수 있음.

자유 토론

o FTAAP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

- 보고르 목표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추진해 볼만한 도구로 생각됨.
- FTAAP가 APEC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생각, 따라서 우리 정부도 향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만한 이슈로 여겨짐.

o APEC 구속력 강화 문제에 관한 논의

- 미국을 제외한 SCO(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), ASEAN+3 등의 활성화됨에 따라 미국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낌, 미국이 APEC을 강화시키려는 이유로 생각됨.
- 미국의 FTAAP 추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됨.

o APEC 개혁문제

- APEC 개혁문제는 정체성 문제임.
- 사무국 강화되고 전문화되면 논의를 사무국에서 이끌어 나갈 우려가 있어 주최국의 의미가 없어짐. APEC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

2. 제 2 세션 “APEC의 WTO/DDA에 대한 기여”

사회: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발표: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

o APEC의 WTO에 대한 그동안의 기여

-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기여
- WTO 출범 이후에도 다자간 교역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
- 그러나, APEC의 기본적인 목표는 WTO와 일치하나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APEC이 WTO 업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.

o DDA 협상의 APEC 기여

- DDA 협상 출범부터 APEC이 적극적으로 기여
- DDA 시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APEC이 세계무역의 50%를 차지하는 것을 강조하여 APEC이 DDA 타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.
- 농산물과 NAMA 분야의 협의를 강조할 수 있음.

o 앞으로의 기여

- DDA 협상의 재개가 APEC으로서는 최우선의 과제
- DDA 협상의 재개를 위한 농업분야의 협상진전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- APEC 차원에서 농업 협상에 관련된 국가들이 단합하면 EU와 협상하는데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및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이 필요함.

토론: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교수

o WTO에 대한 APEC의 기여

- 구체적이기 보다는 암시적, 소극적(passive)으로 기여함.
- 세계 무역의 50%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지원한다는 면에서 직접적이기 보다는 응원단적인 역할을 해옴.
-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에 새롭게 도입된 문제들의 협정을 지키도록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해옴.

o DDA 협상을 위한 APEC의 앞으로의 기여

- APEC이 DDA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기는 힘들 것임.
- 비밀회의(closed door session)에서 다양한 이해(interest)를 가진 국가들의 논의를 도와줄 수 있음.
- APEC이라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음.

자유 토론

o FTAAP의 가능성

- ASEAN+6를 중심으로 하는 FTA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결된다면 FTAAP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o APEC의 의미

- 지역협력체로서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4강과 경제 통상뿐 아니라 북한 문제 등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.

3. 제 3 세션 “기업활동 원활화와 역내 FTA 모델조치”

- ABAC의 APEC에의 기여와 시사점 -

발표: 남상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o APEC과 ABAC의 관계

- 정부간 협력체인 APEC은 기업활동이 역내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기업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식 정상기업인자문기구인 ABAC을 출범하였음.
- ABAC은 무역자유화 보다는 무역과 기업활동 원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o APEC의 무역원활화 및 기업활동 원활화 관련 논의

-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관련 거래비용 감소, 지적재산권(IPR) 보호, 투자 및 교역안전 등을 포함하는 '부산 기업 아젠다'가 부산로드맵의 일부로서 채택한 바 있음.
- 2007년 통상장관회의 논의를 목표로 추가 무역원활화조치(TFAP) 개발 계획을 현재 논의 중임.
- 높은 수준의 RTAs/FTAs 추진이 무역원활화의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음.

o ABAC의 정상에 대한 권고

- ABAC은 2006년 아래 내용을 포함한 13개 분야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였음.
 - APEC 회원국들은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
 - 높은 수준의 RTAs/FTAs 촉진과 더불어 APEC 자유무역지대(FTAAP) 타당성 연구를 통해 역내 진행중인 RTAs/FTAs 간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APEC 이니셔티브 개발을 촉구
 - '부산 기업 아젠다'의 이행과 과감한 정책적 조치를 요구
 - 안전하고 우호적인 무역과 투자환경 촉진을 위해 APEC 표준체계 및 2006-2010 무역원활화실행계획의 이행 등을 제안

o APEC의 과제와 시사점

- ABAC은 정상과의 대화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권고안 내용이 포괄적이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. 2007년부터 SOM과의 대화가 시도 되는 것은 ABAC이 APEC 실무그룹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음.
- APEC이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에서 향후 ABAC 활동에 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.
 - 대외적으로 RTAs/FTAs 확산, 무역이외 의제의 확대,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가 APEC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
 - 대내적으로 신규회원가입 문제, APEC 내의 비전 달성과 관련한 문제, APEC의 합의에 의한 추진방식 등을 고려해야 함

토론: 박인원 고려대학교 교수

o APEC의 발전과 APEC 연구센터

- 현재 APEC 연구센터는 기존 APEC 보고서 정리 등 비중이 낮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각 국의 APEC 연구센터 상호간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을 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함.
- 담론보다는 실제적이고 실천가능한 연구를 해야 함.

o APEC 연구센터의 기여방안

- 무역원활화의 긍정적 파급효과와 도미노 효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현재 학계의 전반적인 동향이나, 무역원활화가 낳는 비용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. 따라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용과 무역창출 효과의 상관관계를 현실적으로 따지는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며, 이러한 연구를 APEC 연구센터가 수행할 수 있을 것임.
- 2007년 SOM과 ABAC간 대화에 APEC 연구센터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4. 제 4 세션 “부산로드맵의 이행과 APEC 개혁”

발표: 한홍렬 한양대학교 교수

o 부산로드맵의 이행

- APEC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독특한 진화형태를 보여줌.
- 그러나 APEC은 통관 프로세스, 표준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관점에서 볼 때,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자유화 효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를 하였다고 봄.
- 부산로드맵은 APEC이 가진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나마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됨.
- 그러나 회원국들이 보고된 목표의 실현에 있어 이른바 ‘number crunching’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Action Plan이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, 다양한 분야에서의 능력배양, 조화, 기술 협력 등 투자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함.

o APEC 구조개혁

- APEC의 구조개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APEC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함.
- 특히, 조직 및 예산 증액을 통한 APEC 사무국 역량 강화는 향후 APEC의 정책 집행 및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사업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.

토론: 노재봉 박사 ((주) 효성 상무)

o 부산로드맵의 이행

-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산로드맵 중에서 부산 기업 아젠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.
- 예를 들어 관세절차, 상호인증(mutual recognition), 경제인 여행카드(ABTC)확대, 지적재산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다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.

o APEC에 기업 참여의 문제

- 중소기업은 APEC 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접근할 역량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기 힘들.
- ABAC 위원들은 각국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나라의 경제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움. 또한 각 기업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안전에 따라 기업간 이해 조율도 필요함.
- 전경련과 같은 기업집단을 ABAC 에 참여시킴으로써 대표성 부족이나 기업 이견 조율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.

o APEC의 조직개편과 강화

- APEC 사무국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(leading role)을 할 수 있는 만큼은 강화되어야 함.
- APEC의 방만한 조직을 단순화, 효율화 시키는 것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정상 혹은 각료회의에서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o APEC RTAs/FTAs 최적관행

- 현재 DDA 협상 진행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으므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.
- APEC에서 FTA 최적관행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협상단의 자질과 FTA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임으로서 향후 한-미 FTA나 한-일 FTA를 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.

5. 종 합 토 론 “아태공동체 형성과 ASC의 기여방안”

o ABAC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

- ABAC의 전문성 결여나 비활성화는 APEC도 공유하는 문제로서 일견 태생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나, ABAC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함.
- ABAC의 가장 큰 문제점은 Big Shot Mentality로서 정상과의 만남 이외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없다는 점임.
- 한국 ABAC 위원이 재계를 실제 대표하는 것인가라는 대표성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점임.
- ABAC 보고서에 한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임. 한국 ABAC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고, 한국 기업의 이익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줄 수 있기를 기대
- ABAC이 관심 있는 분야를 APEC Working Group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며, 이런 구체적 참여가 진정으로 APEC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됨.

o APEC 관련 논의 방향의 문제점

- 현재 대부분 APEC 관련 논의는 상당히 거시적인 분석 위주로서 세부적이고 실무적 논의가 부족

o APEC의 향후 발전방향

- APEC의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이고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함. 따라서 치밀한 경제적 분석에 입각한 구체적 지표와 계량화 근거 발굴이 APEC 진행과정 전반에 도움이 될 것임.
- APEC의 자발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.
- 현 APEC 프로젝트는 성과 도출보다는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음. 좀 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.

o APEC 연구센터의 향후 역할

- 미국이 APEC을 구속력 있는(binding) 체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, 실제로 이처럼 변화된 APEC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면 그 수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APEC 연구센터가 해 내야 하는 역할이라고 봄.
- 무역자유화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기술협력(ECOTECH)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나 모델을 창출해 내는 역할 기대